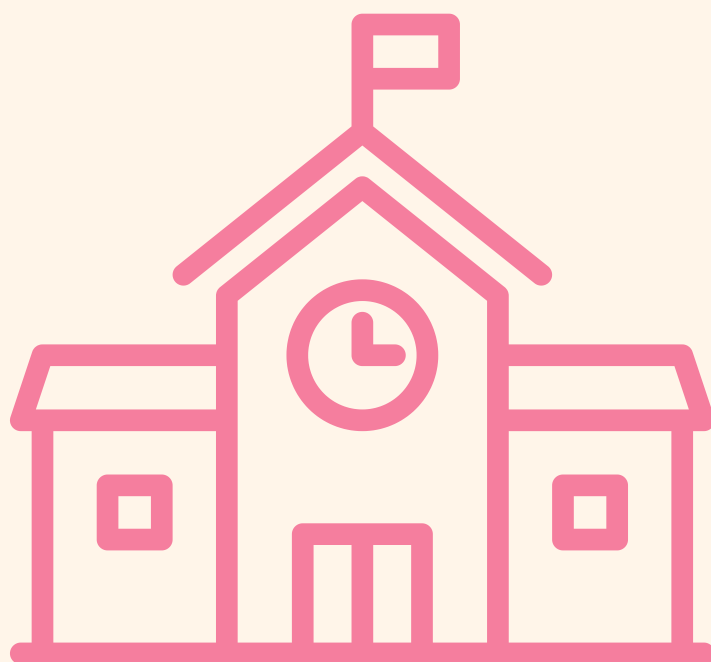


3학년의 글모음집



남부초등학교

3학년의 멋진글을 감상하세요

남부초등학교 우리의 글

부들 부들 햄똥이

부들 부들 햄똥이
말랑 말랑 귀엽다

이름: 구사랑
3-1

찍 - !!! 귀여운 햄똥이

해바라기 씨 다 먹고
쿨쿨 잔다.

찌린 내 나도 귀여워

희색

똥똥 지금은

무지개 다리 건넜지만 ...

내 맘 속에 있는
소중한 우리 햄똥이
언젠간 또 만나!



거인 달리기

3-1 김가온

태권도장 아이들은
태권도 시간이 종나보다

쿵 쿵 쿵 쿵
태권도장으로
뛰어가는 소리





핑핑핑

폭탄이 터졌어보다

핑핑핑

옥수수알이

고소한 팝콘이

너도 먹고 나도 먹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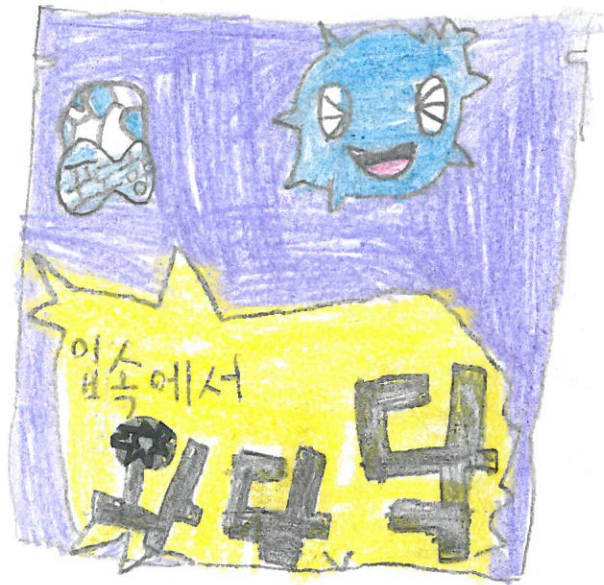
선나쁜 팝콘



팝핑캔디

3-1 김리한

톡톡
톡톡
톡톡
톡톡
톡톡
톡톡



팝핑캔디가 입 안에서 톡톡 터진다

내 입 안에서

볼록 놀이를 한다

솜사탕

3-1 김민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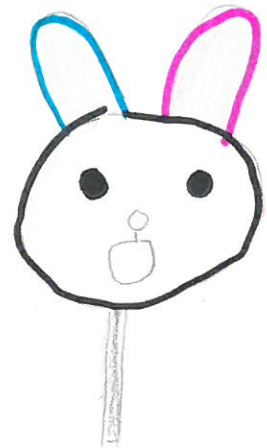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솜사탕이 내 입에서 녹는다



내 입 안에서
 사르륵 녹는다



방귀소리

3-1 김요선

뽕 뽕
뽕뽕뽕
뽕뽕 뽕뽕
뽕 뽕 뽕
뽕 뽕



방귀가 터진다.

내 배 속에서
방귀 놀이를 한다.

산도 대답해주는구나

3-1 김원종

돼개 높은 산에서

소리들 지르자

메아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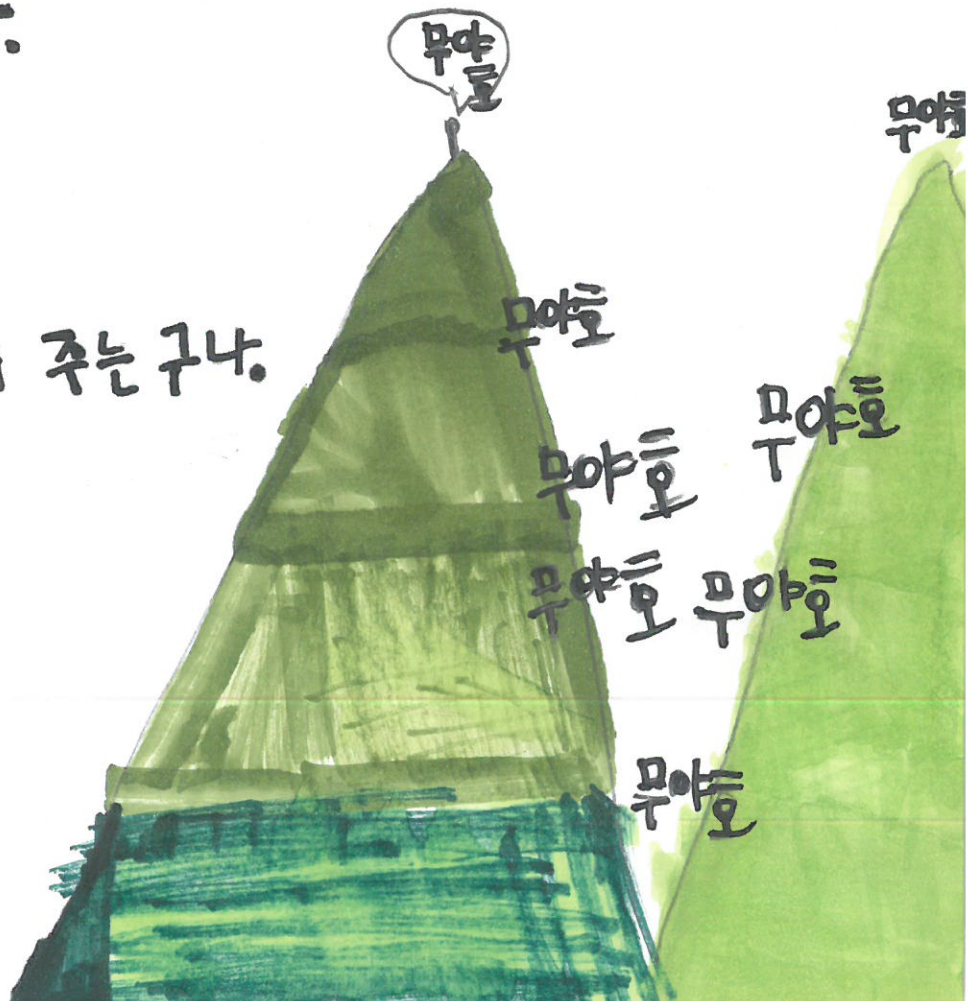
돌아온다

아, 내작은 신호에도
산은 대답해 주는구나.

그 큰산에

이 조그만 한 쇠

그래도 산은 대답해 주는구나.





우유도 대답해주는구나

3-1 박하물

시끄러운 우리 집에서
이불을 꿈직라 거려
두더지 처럼 파고 들었다.

우유가
굶질 굶질 놓고 싶은지
움직였다.



주인의 작은 신호에도
우유는 대답해 주는구나 "멍멍"

그조그마한 몸짓에
이큰 행동
그래도 우유는 대답해 주는구나.



수학시간

3-1 배도운

내 몸
불안이가 들어왔다.

-불안불안
불안을 따라
몹시 흥분한 흥분도 들어왔다.
-흥분흥분

채점을 받고 나니

-차분차분
차분도 들어오고
까무룩
졸림도 들어왔다

내 몸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 몸이 아주 무거워 졌다.



바다도 대답해주는구나



3-1 양준모

바다 무래 밧에서
바다에 들어가
슬라임처럼 파고 들었다.



바다가
찰랑찰랑 간지러운지
움직였다.



아 내작은 움직임에도
바다는 대답해 주는구나

그 거대한 몸짓에
이 조금한 발짓

그래도 바다는 대답해 주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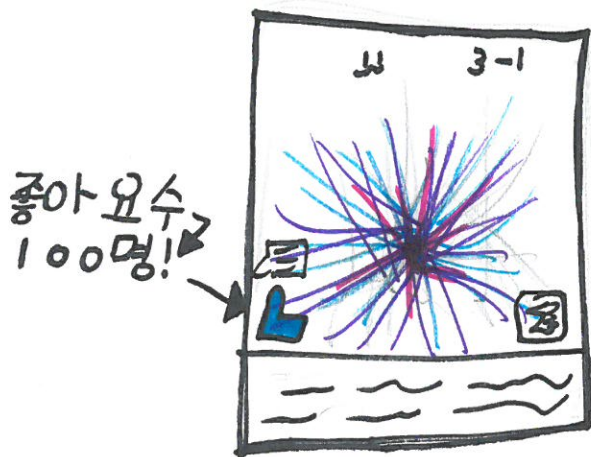


[불꽃놀이]

3-1 => 오다은 ^{50%}

퍼!
퍼! 퍼!
퍼! 퍼! 퍼!
퍼! 퍼! 퍼!
퍼!

불꽃놀이를 한다.
하늘 위에서
불꽃놀이를 한다.





팔랑 팔랑 치즈

3-1:7이봄

팔랑 팔랑

길고양이 치즈

내가가는곳마다 있는

치즈

팔랑 팔랑

도망도 안치는

길고양이

치즈



팔랑 팔랑

나비 한마리

지나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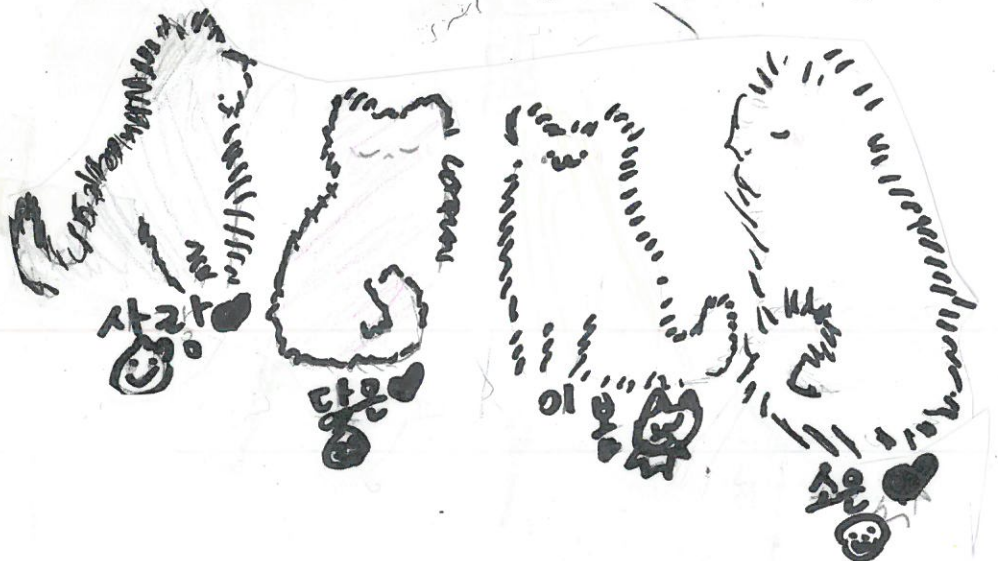
무시하고

나랑있는

6살 치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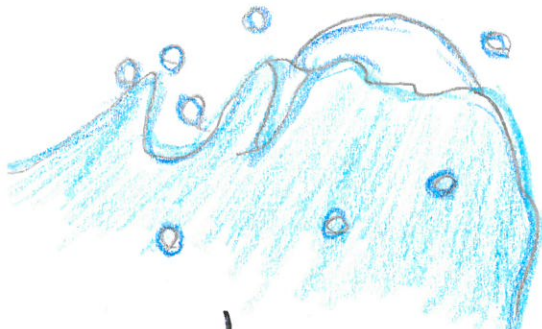
나랑

오래 오래 놀자!



바다소리

이성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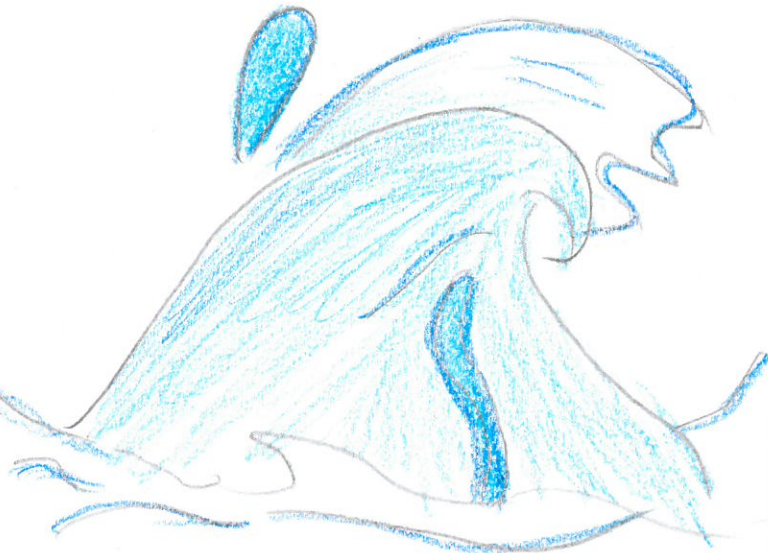


하늘에 나는 아이들도
음악시간이왔나보다.

파아파아,

음악시간

귀에 귀 소리



맛있는 햄버거

3-1. 정선후

맛있는 햄버거

맛있는 햄버거

냠냠 쥘쥘 .



고기, 야채, 참깨빵

소재료가 맛있어.

맛있는 햄버거 매일 먹고싶다.

맛있는 햄버거 다 먹었다.

언제 먹어도 맛있다.



불소도포



신랑 먹어줘

3-1 정소은.



공적공적

우리반 애들은

불소도포가 끔찍하나보다.



“기아아아아하기 끔찍 아니아니 안돼에에에해해”

도 망치려 하는

하기 전. → 하고 후,

☆무서운 비명소리☆

(기겁)



(공식중)



네에..

다음.

종이도 대답해 줘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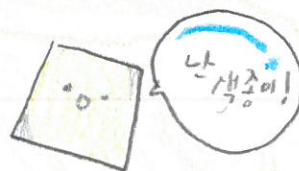
학교 평화로운 우리 반에서
만들기 해서
미어캣처럼 바라봤다.

정수민
3-1

종이가 움직이고 싶었지
펄럭펄럭 움직였다.

아, 내 작은 선택어도
종이는 대답해 줘구나.

이 큰 몸짓에
이 조그마한 종이
그래도 종이는 대답해 줘구나



콩콩콩콩 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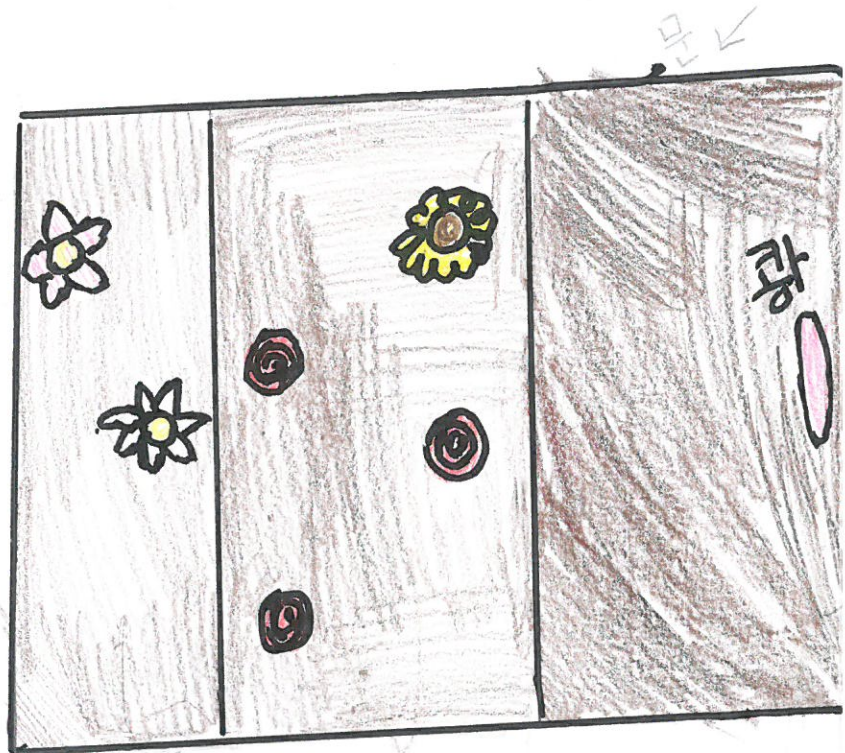
3-1 조나연

콩콩콩콩

우리콩이
내가 나가면

멍멍 월월
내가 오면
발라당
배를 만져달라
누는 우리 콩이

언제나
짹어도 귀여운
우리 콩이



천둥번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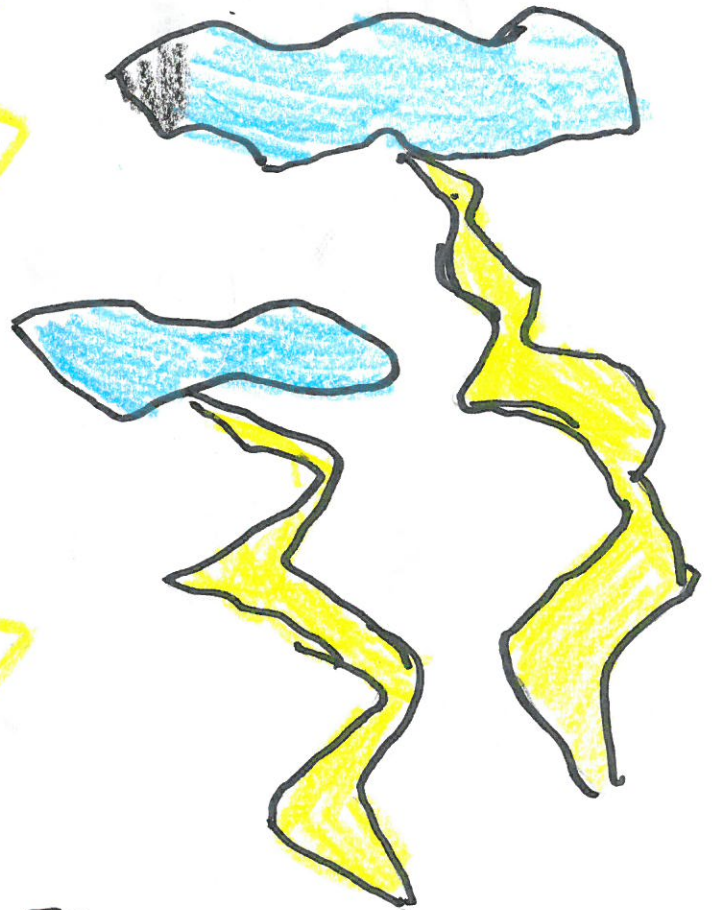
저 호정우

쿵쿵

쿵

쿵쿵쿵

쿵
쿵



천둥번개가 친다.

우르르 쿵

하늘에서 쏟아진다.

지잉지잉 패드

3-1 황찬우

지잉지잉

밥 달라고

지잉지잉

중전기를 쥐도

안달이다

지잉지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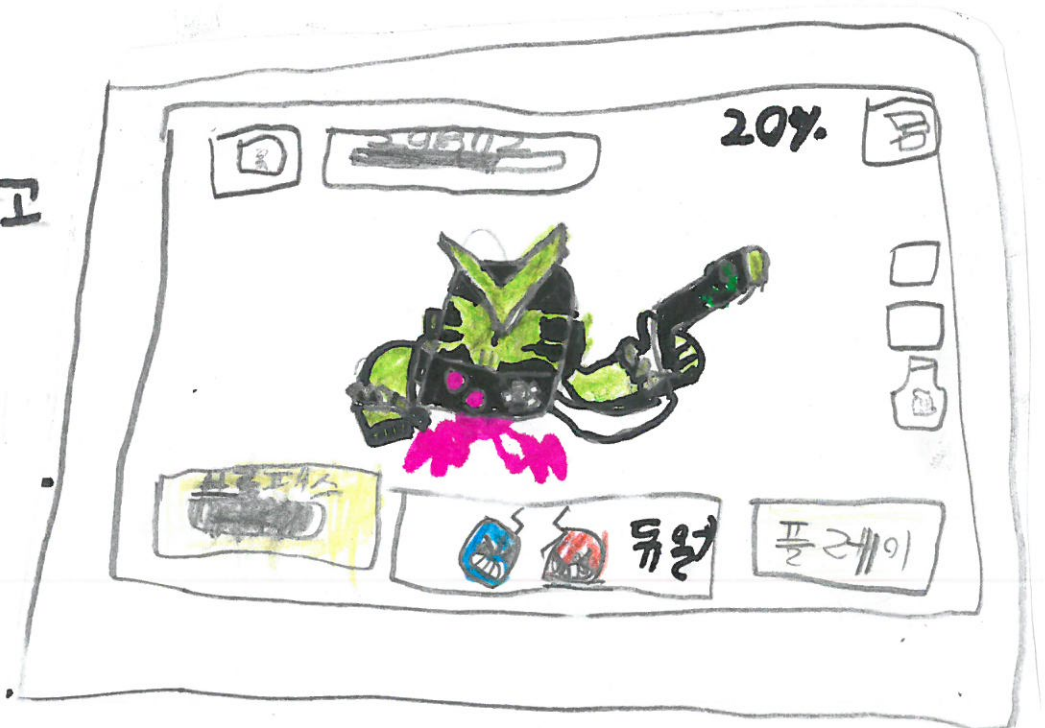
안내문자 왔다고

지잉지잉

카톡왔다고

또

지잉지잉



스케쥴

감수관

팡팡
팡 팡 팡
팡팡

3-2
글그림 : 곽지훈



감수관 과즙 터진다



조그만 내 입안에서

감수관 과즙 폭죽을 터뜨린다.



(점심시간) 3-2
지은이: 김서원

내 뱃속에
밥이 들어왔다.
- 따끈따끈
밥을 따라
맛있는 반찬도 들어왔다.

- 오물오물
급식을 먹고 나니
빠른 빠른
마음이 들어오고
신나게

노는 아이도 들어왔다.

배속에
너무 많은 게 들어왔다

그래서
내뱃속이 아주 무거워 졌다.



라면

3-2 김여성

라면을
끓인다
보글보글
라면을 따라
계란과 파도 들어왔다
딱딱삭삭

라면을 먹고나니
느릿느릿
침대로 올라오고
쿨쿨
잠꾸러기가 됐다

내몸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아주 배불렀다



파랑 심정

제목 축구

3-2 김유환

클론이 김유환

축구는 재밌다

그리고 골키퍼도 있고

또 공격수도 있고

또 수비수도 있고

마지막 미드 피터도 있다

인천 2



나아기 수호공



축구는 경기도 한다

골키퍼는 골을 막아야 한다

내나 하면 골을 먹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공격수는 골을 잘 넣어야 한다

HK
이범수

CM
김도혁

ST
무고사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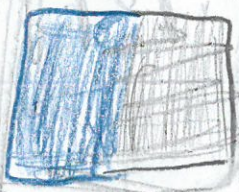
7

CB
델브리지

9

인천 팬 2

파랑 심정



CM
이명주

20

동물도 대답해주는구나

3-2 반 5번

지은이: 노은서

내가 할머니 댁을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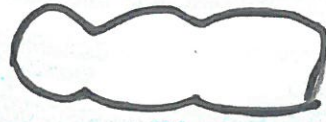
강아지에게 내가

밥을 주려고 하자

강아지가 나에게

고맙다고 하는 것 같았다

동물도 대답해주는구나.



글

3-2

글쓴이: 문소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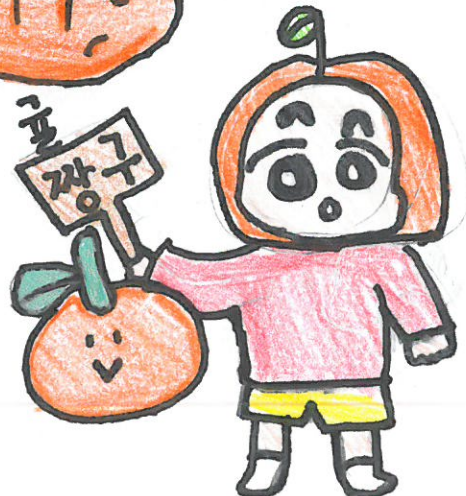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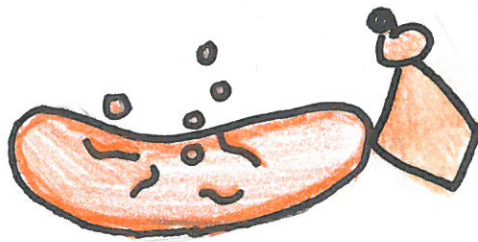
냠 냠

쩍 찹 찹
냠 냠 냠 냠
쩌 냐 냐 냐
냠 냠

꿀알맹이가 터진다.

작은 내입 안에서

과즙 놀이한다.



외계인도 대답해 주는구나

3-2 박현민

강가 고운 모래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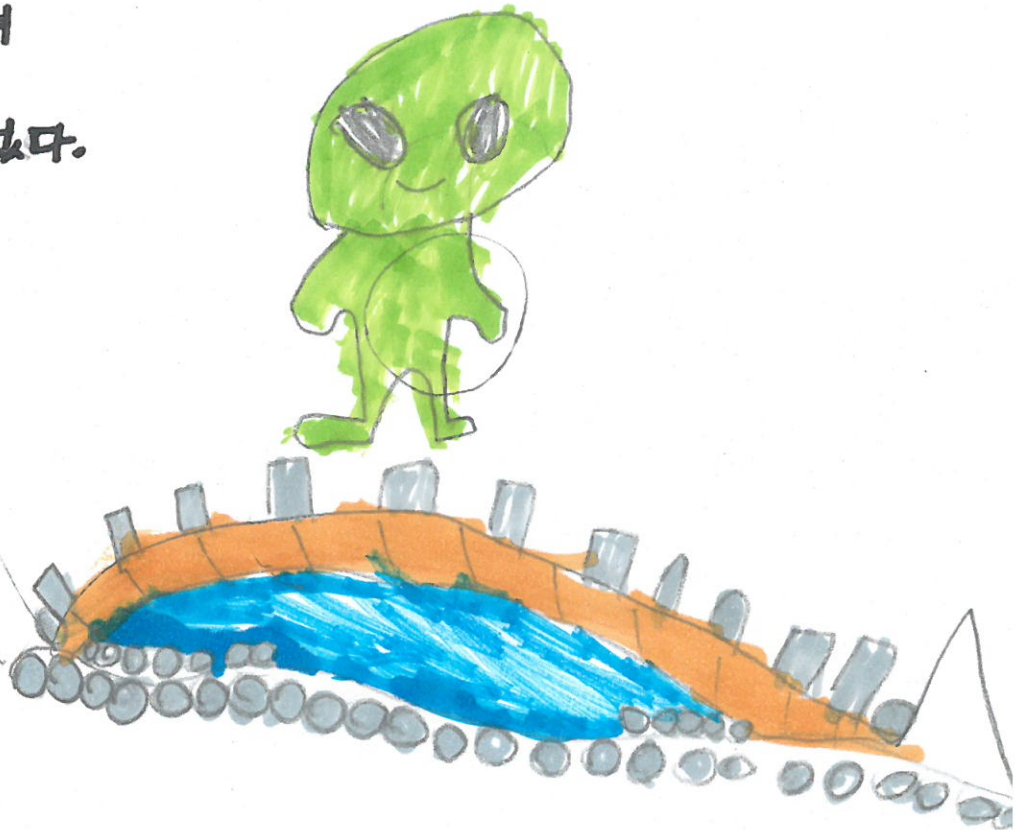
개미가 움직락거려

외뿔구리처럼 파고들었다.

외계인도 간지러운지

꿈길꿈길 움직였다.

아, 내작은신호어도
외계인도 대답해주는구나.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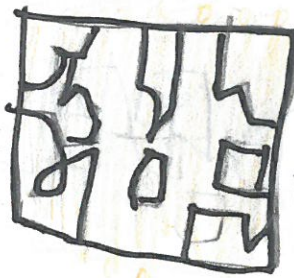
환경이 대답해 주는구나

글: 서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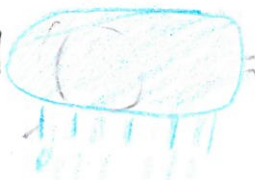
환경이 화나면
폭염

환경이 속상하면
뚜룩 뚜룩 비가 온다.

환경이 많이 안올면
빠지직 빠지직
땅이 갈라지는 건기



환경이 너무 속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우리가 한 작은 나쁜 신호에도
환경이 대답해 주는구나



고양이

3-2

지문이 있는

고양이들도 수업시간에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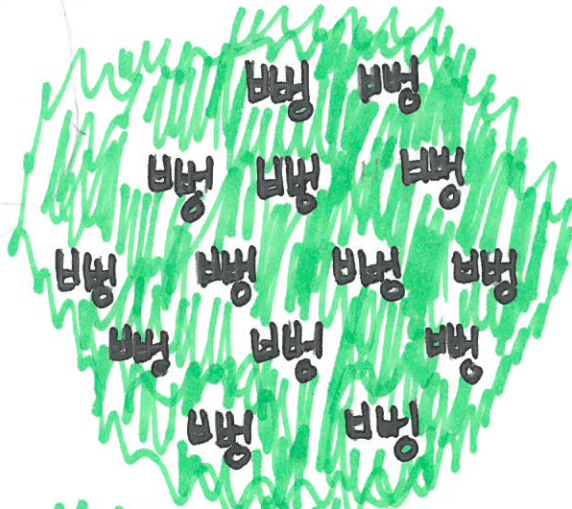
야옹~ 야옹~
수업을 듣는다.



축구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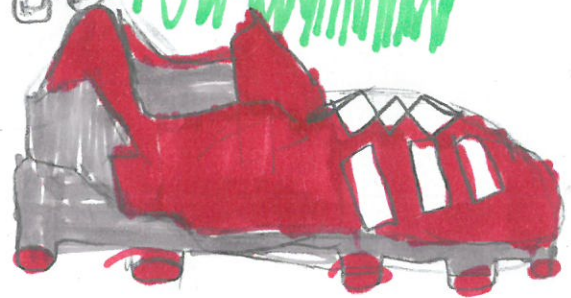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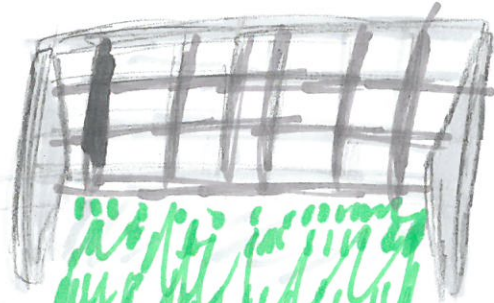
3-2

글: 오윤빈



공이 터질것만 같다

큰 운동장에서
번개소리 난다.



물음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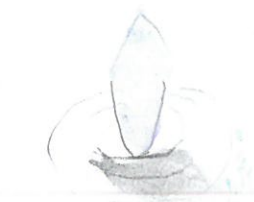
3-2 21-27

글쓴이: 유아영

옆집에 사는 아이가
물고 있나보다.

뚝뚝뚝

물고 있는 소리



그림이 예쁜 글이 예쁜
 강아지도 대답해주는구나
 강아고 윤 모래밭에서
 뽀뽀 짖으면서
 대답하는 강아지
 냄새도 잘 맞는
 강아지
 주인 말 잘 듣는
 강아지
 세상에서 제일
 빠른 강아지
 그 작은 몸짓이
 잘 달리는
 강아지

3-2
 이예준



빗물

3-2
글쓴이: 이지우

톡톡
톡톡
톡톡
톡톡
톡톡

빗물이 땅에 떨어진다

구름이

울고있는것 같다



칠판도 대답해 주는구나

3-2

지윤이: 차윤희

학년이 주르록 오르면서
칠판은 내 학년이 아는지

어려운 문제를 주는구나

문제가 어려운데 시간운

뚝딱뚝딱 빨리 지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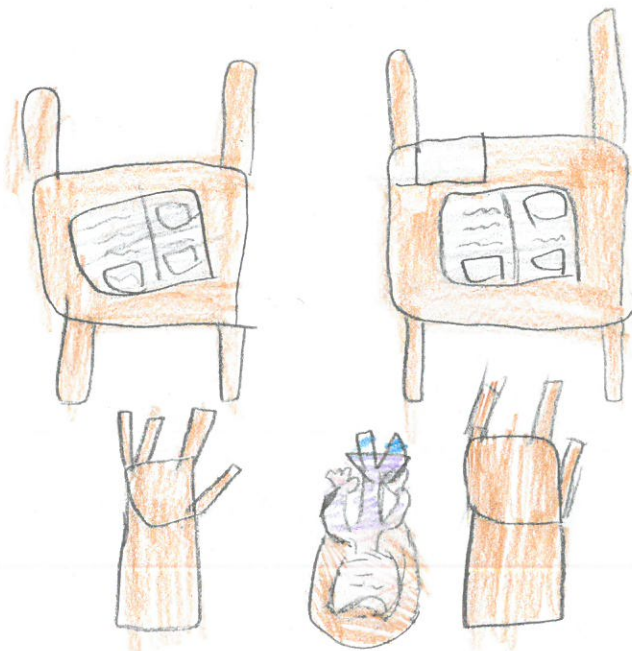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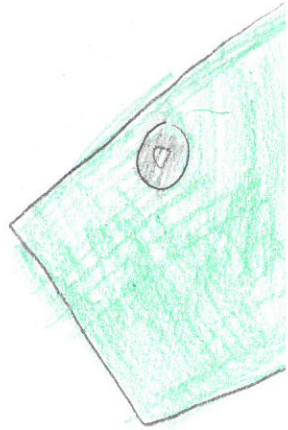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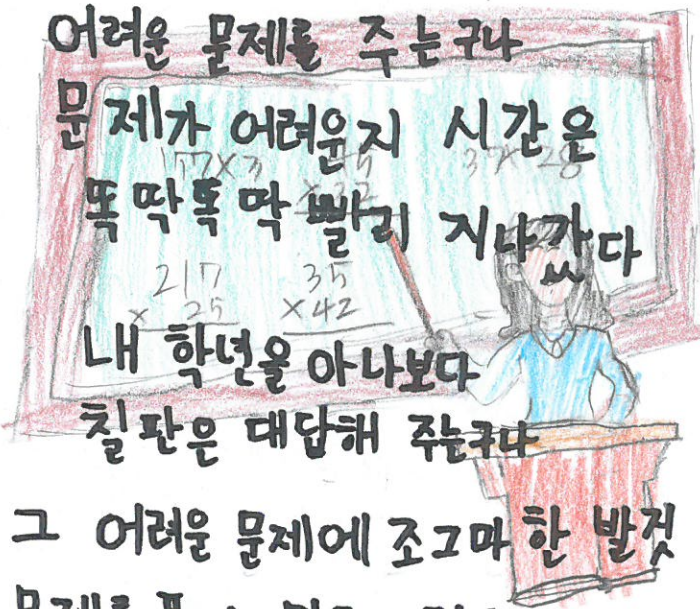
내 학년을 아나보다

칠판은 대답해 주는구나

그 어려운 문제에 조그마한 발전

문제를 풀게 만들어 주는구나

그래서 칠판은 대답해 주는구나



3학년 2반 16번

독감기

지은미, 최연우, 그림: 최연우

내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따끈따끈

바이러스를 따라
깃털도 함께 들어왔다
-엷쭉! 엷쭉!

독한약을 먹고나니
땀까지 흐르네
아주 부거운 돌맹이도 들어오고
쿨~쿨
고알라 도들어왔다

내몸에
아주많은 것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몸이 너무무거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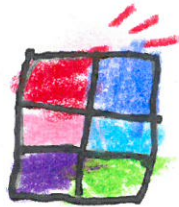
쿠키

최은지

부스럭
부스럭 부스럭
부스럭 부스럭 부스럭



쿠키가 터진다.



우리집 안에서
큰 소리가 난다.
큰 소리가 난다.



체육

글: 주연성 그림: 주연성

내몸에

열병이가 들어 왔다

- 화르르

불병이를 따라

체력이 빠져 나간다

- 허레 땀

쥘고 나니

힘이 붙쑥

힘도 들어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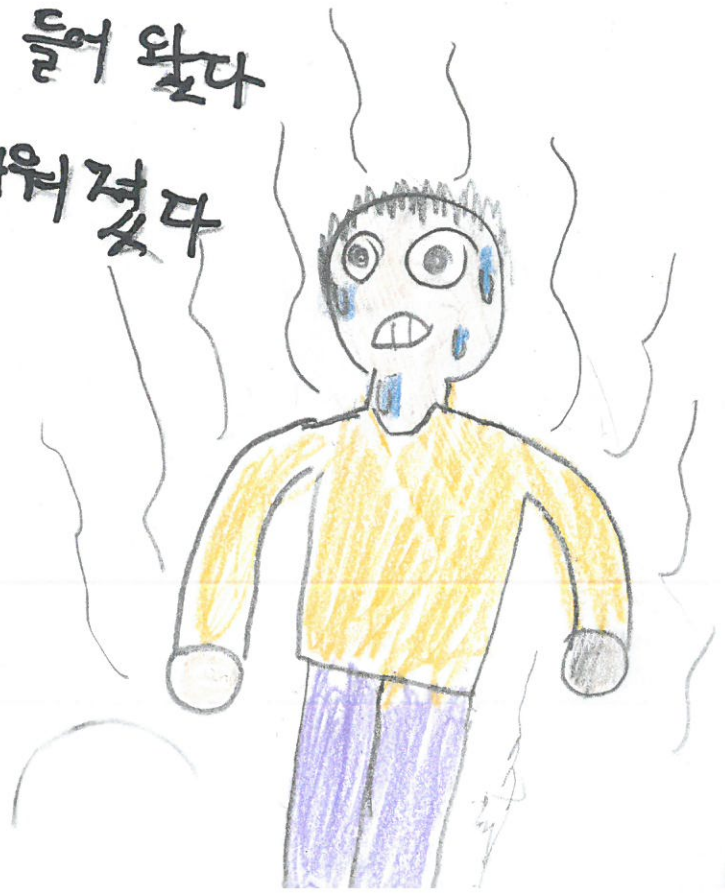
광난꾸러기가 들어 왔다

내몸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 왔다

그래서

내몸이 아주 부글부글 끓는다



[급식실] 3-2

지윤이: 함 예 린



내 몸에
밥이 들어왔다

[꼭꼭]

밥을 따라

몹시 차가운 물도 들어왔다

[꿀꺽꿀꺽]

야채를 먹고 나니

[아삭아삭]

김치도 들어오고

[매콤]

김치찌게도 들어왔다

내몸에

너무많은 음식 들어 들어왔다

그래서

내몸이 아주 똥똥 해졌다!



나무

3-3 강윤우

외로운 나무 한 그루
네가 울면 울어 주고
네가 웃으면 웃어 주고

네가 화가 나면 화 내 주고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주고

나무가 금새 더 커졌다
나는 나무가 좋다





강아지

3-3 김 나예

멍 멍

멍 멍 멍

멍 멍 멍 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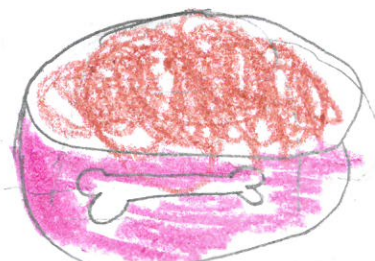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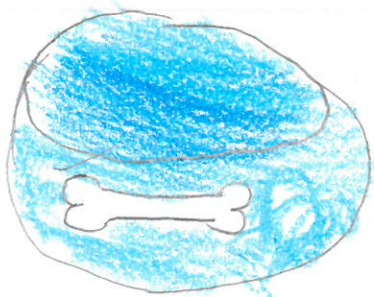
멍 멍 멍 멍

멍 멍

배고프다고 난리다.

배고프다고 밥그릇 앞에서

난리를 친다.



파도

김도연

오늘은 바다 가는 날

하하 사람들이 웃을 때
끼룩 끼룩 갈매기도 웃네

파도가 그걸 들었는지
쉬익쉬익 파도도 웃네

아. 작은 신호에도
파도는 대답해 주구나

크큰 물짓에
조그마한 소리
그래도 파도는 대답해 주구나

죽구

3-3

3-3 김 죽구

3-3 김도영

운동장에 사는 아이들도
죽구하는 시간인 것 같다

바바

공인물

한 것 같다



오와 와오 대한민구 조이고오오오오

거품

3-3

김하솔

‘뽕뽕뽕’
거품이 날아다닌다.



거품을 만지자
갑작같이 ‘폭’하고
없어졌다.

‘포로로록’
거품이 다시 생겼다.

거품도 목욕탕에서
파티를 한다.



강아지 소리

3 - 3 박도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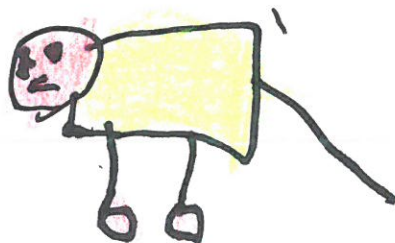
강아지 수영을 했다

텀뽐텀뽐 수영을 했다

왓자지깡 시끄러운 소리

강아지 멍멍 짖어댄다

신나게 댕어놀았다



물놀이

3학년3반 박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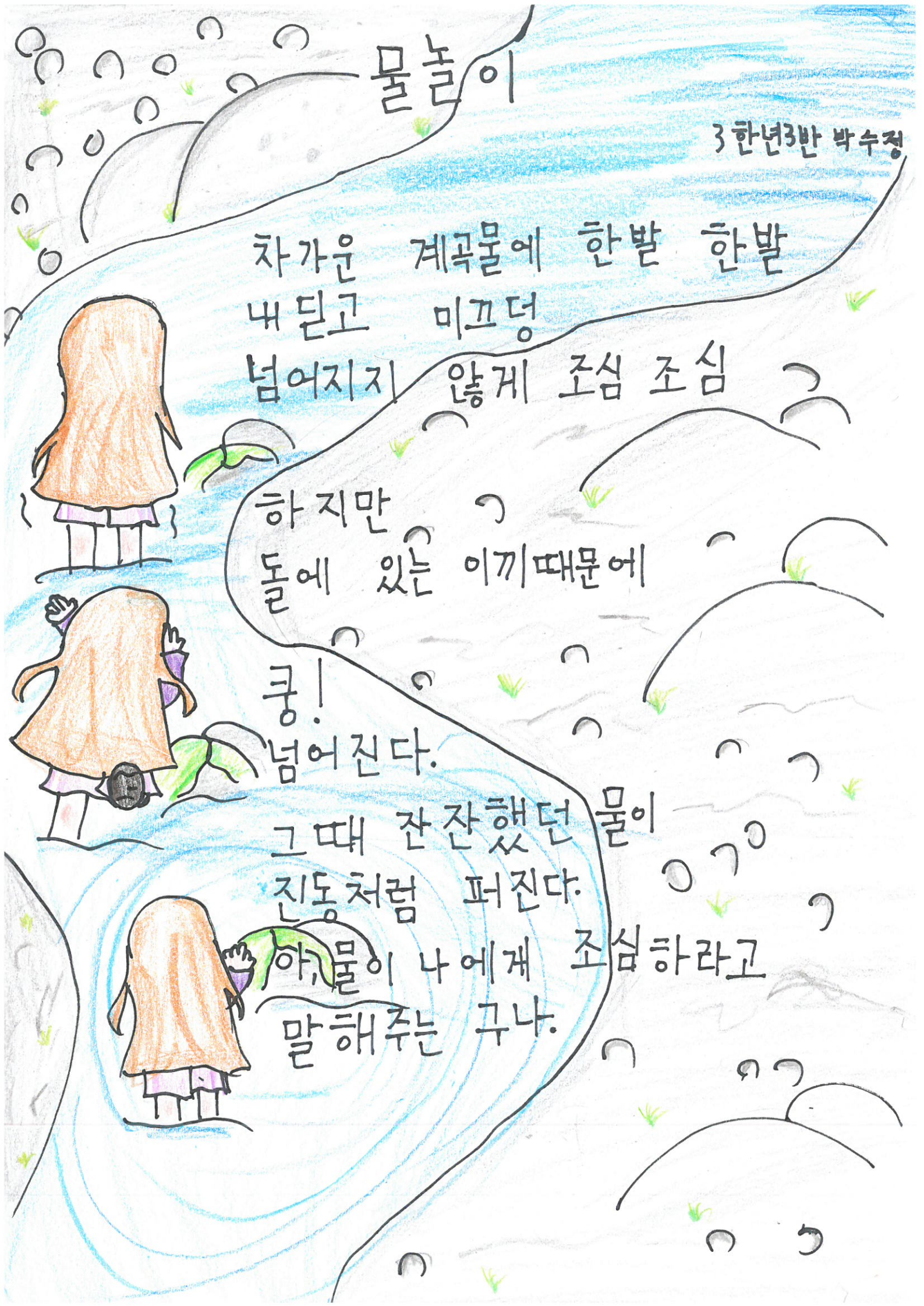
차가운 계곡물에 한발 한발
내딛고 미끄덩
넘어지지 않게 조심 조심

하지만
돌에 있는 이끼때문에

쿵!
넘어진다.

그때 잔잔했던 물이
진동처럼 퍼진다.

아, 물이 나에게 조심하라고
말해주는구나.



풍선

3-3 이름: 백승아

내가 좋아하는 풍선
여러가지 색깔의 풍선

팡!

풍선이 터졌다
깜짝이야!

풍선이 터진다

깜짝이야.

작은 크기지만

소리는 작지 않다.

소리는 작지 않다.

달리기 소리

3-3반 오은윤

학교에 사는 아이들도

달리기 시합이 있나보다

쿵 쿵 쿵 쿵 쿵 쿵
아이들이 쿵 쿵 쿵 쿵
운동장에 서
달리는 소리



[장난감 총]

3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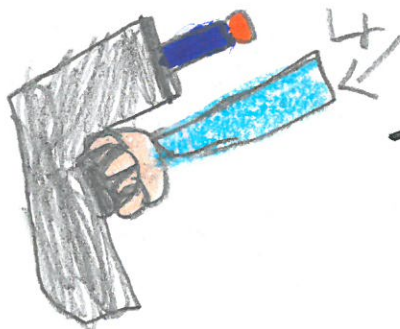
재원: 오태양

피슈 피슈

피슈 피슈 피슈

피슈 피슈 피슈 피슈

피슈 피슈 피슈



팡!

장난감 총을 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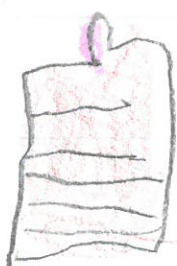
작은 장난감 상자에서
북 꽃 노이를 한다.

감기소리

3-3 이시안

감기에 걸린 아이들은
힘든가보다

쿨룩 쿨룩, 쿵쿵
힘들 어하하
콧물, 기침소리



손흥민 3-3 이재원

강가 고운잔디밭

밤가락으로 달린다
우사인 볼트처럼 달린다



잔디밭간 지루한지

잔디밭가만히 있는다

아내작은싸인에도

손흥민도대답은해주면구나

손흥민찰카

서러머나해주면구나

목 감 기

3-3 전소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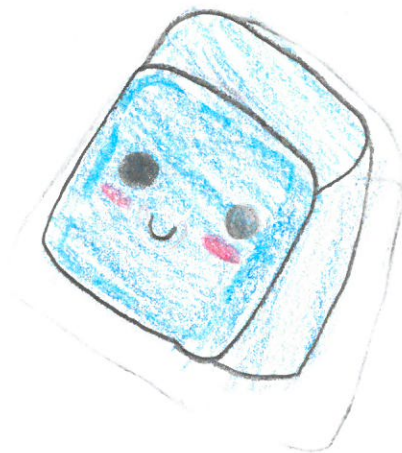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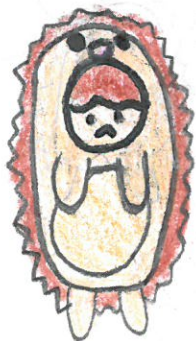
내몸에 고슴도치가 들어왔다.

따끔따끔

고슴도치를 따라

얼음 친구도 들어왔다.

우들오들



약을 먹고 나니

깜빡 깜빡,

힘없는 전구도 들어오고

뜨끈뜨끈,

호빵도 들어왔다.



내몸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몸이 아주 무거워졌다.



인사

3-3 전지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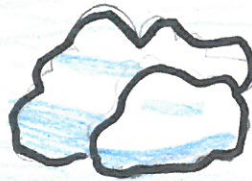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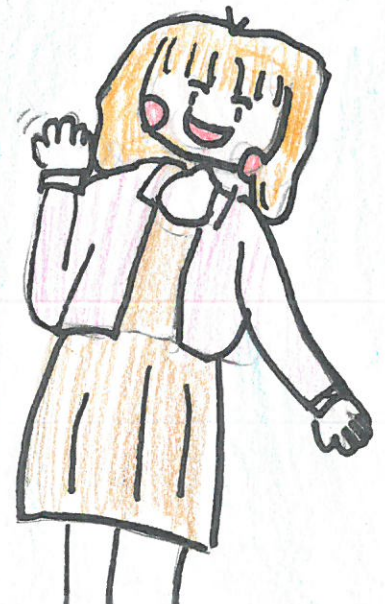
친구 옆에서 나는
야! 라고 부른다.
친구가 날보더니

안녕?

인사를 했다
앞에 계신 선생님
다가가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응~안녕?

이런 작은 말 한마디라도
모두 인사해주는구나



고양이

3-3 지다연

집 안에서
고양이의 소리가 난다
- 야옹야옹



고양이가 배고픈지
사료 옆에서 앉아있다

아, 고양이도 작은 신호에도
고양이는 얘기해주는구나

조그마한 몸짓
큰 소리로도
고양이는 얘기해주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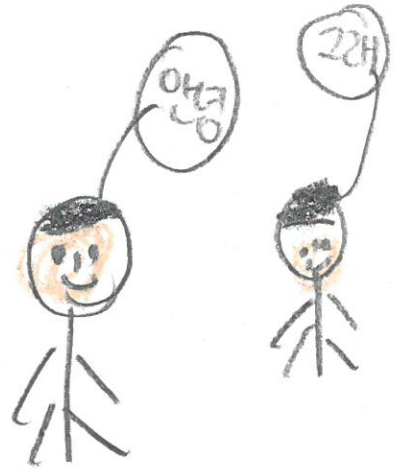


내일은 체험학습 가는 날
3-3

이름: 최민찬

내일은 체험학습 가는 날
가슴이 두근두근 뛰다.
두근 두근 두근 두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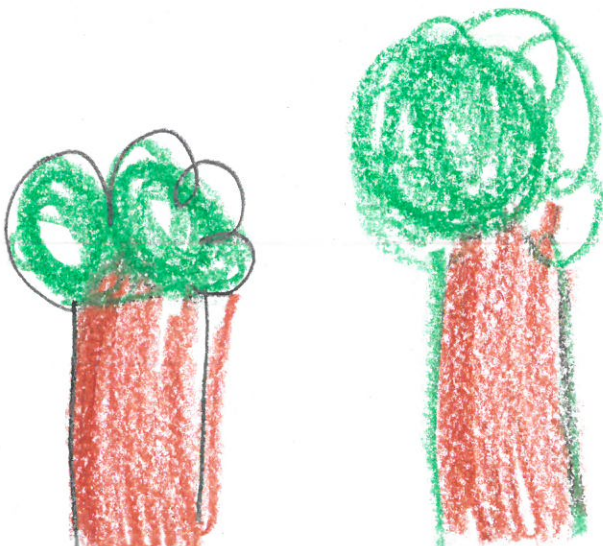
몸이 간질간질거렸다.
마음이 진정해!



아! 내 작은 신호에도
마음이 대답해주는구나



그 작은 마음속에도
설렘이 느껴지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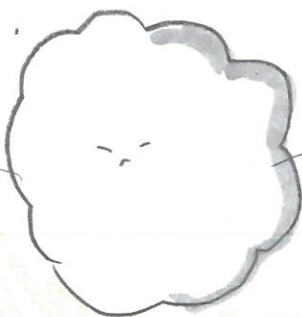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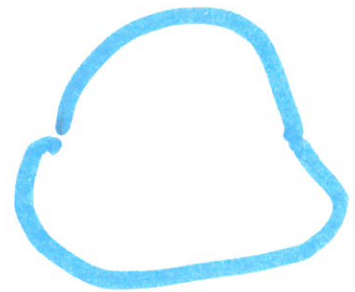


강아지 소리♡

3-3: 초여진

강아지들 에게도
언어가 있나보다

윽윽멍멍
산책하러
달려나가는 소리.



쿨라

3학년 3반 조/중



툭툭
툭툭툭
툭툭툭툭
툭툭툭
툭툭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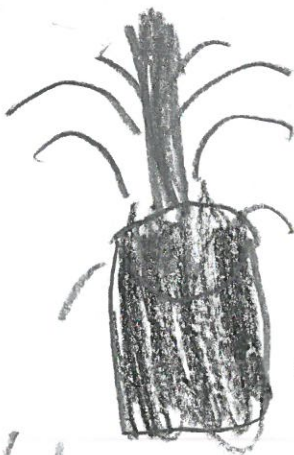


쿨라가 터진다.

작은 병 안에서
폭죽을 터뜨린다.



카!
카!
카!
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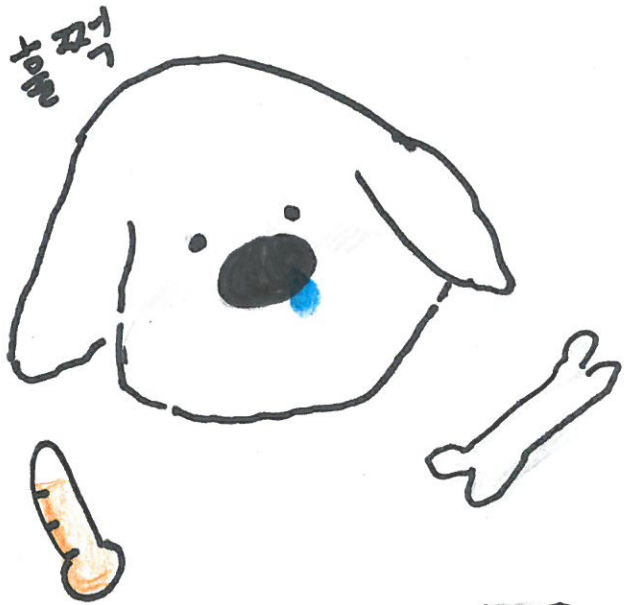


감기

3-3 하나원

내 몸에
불덩이가 들어왔다.
-후근후근
불덩이를 따라
몹시 더운 사람도 들어왔다.
-뜨끈뜨끈

약을 먹고 나니
느릿느릿,
거북이도 들어오고
스쿨르,
잠꾸러기도 들어왔다.



내 몸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 몸이 아주 무거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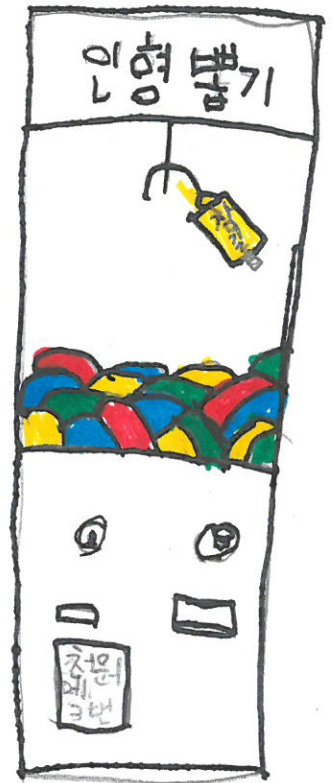
이형 병기

3-3

박시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ㅢ
 ㅝ ㅞ ㅟ ㅠ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이름을 자꾸만 놓친다
기계에 참견을 비뚤한 것이
자꾸만 미끄러진다



가 저
0 0

3-4 강겨우
0 0

내 몸 에

엄청나게 많은
감정이 들어왔다.

기쁨, 슬픔, 화남, 당황, 놀람
기쁨, 슬픔, 화남, 당황, 놀람

기쁨때 까르르,

슬픔때 훌쩍훌쩍,
슬픔때 훌쩍훌쩍,

화남때 투덜투덜,
화남때 투덜투덜,

당황할때 고개들 저우뚱 저우뚱,
당황할때 고개들 저우뚱 저우뚱,

놀람때 눈이 커진다.

수많은 감정들이 들어오지만,
수많은 감정들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기쁨을 유지하려고,
그래도 기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타 오 드 드

3-4 김대웅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오 드 드

타 오 드 드

개진다



고장 안에서

고장이

수영을 한다.



비눗방울

3-4

김서희



Handwriting practice sheet for the Chinese character '五' (five). The page is divided into three horizontal sections by blue and pink lines. Each section contains several examples of the character '五' written in black ink, with some examples circled in blue or pink to highlight specific strokes or forms.

두가 죽든 못 죽든 더 똑똑하다.

작은 북이 터 안에서

비록 방울 꽃이름 한다.



매미도 대답해주는구나

박건울
3-4



햇빛 쨍쨍한 날
밖에서 맴맴맴
이 소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숲을 가도 맴맴
나무 주변을 가도 맴맴

매미도 더운지
맴맴 거린다.

왠지 에어컨 틀어
달라고 하는
우리 같다.



치킨

박다현

지글지글
노릇노릇
지글지글 노릇노릇
지글지글
노릇노릇

치킨이 맛있게 구워 집니다.

큰상자 안에서

퐁~ 터집니다.

잘먹겠습니다!!



윽 집

3-4 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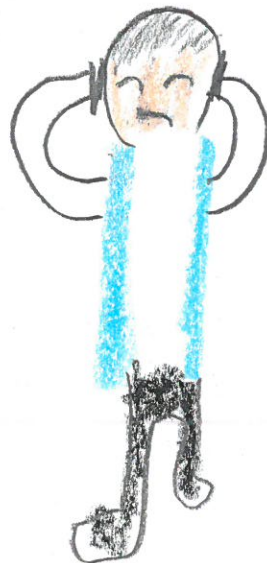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윽 집이 부서진 다

작은 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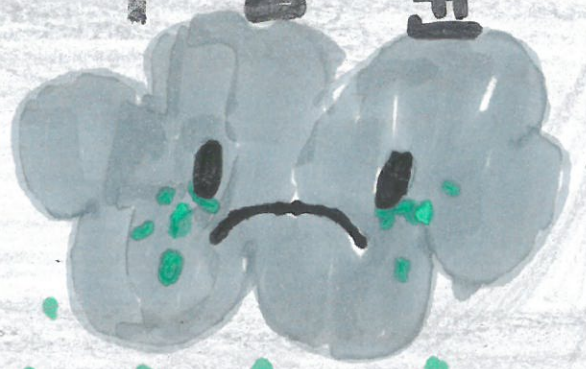
로켓트를 타다 나



하늘도 살아 있구나

어느날
비가오고 있다.
하늘이 슬프게보다.

3-4 십아윤



이제 기분이 좋아졌나보다.

하늘에 무지개가 있다.



아, 지구도 살아 있구나
기분이 있구나



그런 하늘에
이 작은우리
그리고 하늘은



대답해주는구나

산도 대답해주는구나

3-4 유채아

산을 대답을 잘해
내가 안녕! 하면
산도 안녕, 안녕

산이 내 말을 똑같이
안녕! 산이 말을 해

나의 친구처럼
대답을 해주!

난 친구가 생긴 기분이었어
난 정말 좋아

산을 올라가는 건
힘들지만 정말
괜찮아.

[물 붓 놀이 3-4]

음하리

팡

팡

팡

파팡

팡

팡

팡

팡

파파팡

파팡

팡

팡

하늘에서 번개가 친다.

크고 큰 등불에서
아래 가리 번개가 친다.

팡

점심시간

점심시간
맘마가
울린다!



3-4

육효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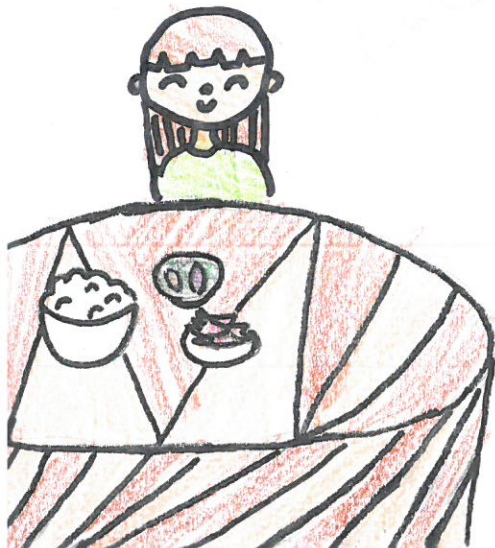
배에 사는 아이들도

점심시간이 있나 보다.

꼬르륵, 꼬르륵

배에서

밥 달라는 소리



충치

3-4 윤성원

내 입에

충치가 들어 왔다

— 따끔 따끔

부푼 어긋난 잇몸 따라

내 입에 내집마련한 충치도
들어 왔다

— 꼬르륵 꼬르륵 ~

밤을 먹고 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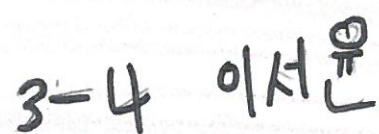
충치가 심나서

내이를 아주 썩었다

그래서 내입이

아주 아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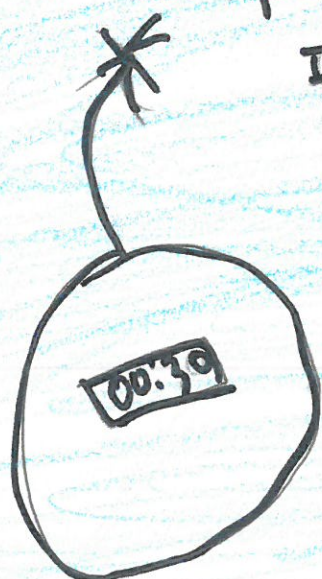


A collection of 12 handwritten 'Om' symbols arranged in a circular pattern on a yellowed, textured paper. The symbols are drawn in a dark ink, with some showing slight variations in stroke and orientation, suggesting they were written individually. The background is a light yellow, aged paper with some minor discoloration and texture.



폭탄이 터진다.

작은 폭탄 안에서
폭탄 놀이 큰 한자





[나의 감정]



4월 15일이어서
나의 감정에

기쁨이 가득 들어왔다.
-하하호호-



기쁨이 온따라
슬픔이 도들어왔다.
-헉헉-



친구랑 싸우고 나니

-버럭 버럭

버럭이 도들어오고

까칠까칠

까칠이 도들어왔다,
나 감정에

너무 많은 감정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주 주무쳐졌다.





(충간 소음)



3-4기원승



위쪽에 사는 아이들이
달리 기서함을 하나보다

쿵 쿵 쿵 쿵,
시합에서 이기려고

뛰어가는 소리

구름도 대답해 주는구나
3-4장서야

차를 타는데
구름이 날 쫓아온다
멀리 가도

그새 나도 모르게
가까워지고

아, 구름도
여행을 가는구나



우리 차가 멈추면
구름도 멈추고



슬래 잡기 중이구나

미술 대회

3-4 정승빈

내 몸 에
피카소가 들어와 다
- 쓱쓱쓱 쓱

간장이 또 들어와 다
- 두근두근

대회가 끝 나고 나니

유~
안심이 또 들어오고

하하
기쁨이 또 들어와 다

내 몸 에
너무 많은 것 들 이 들어와 다
그런서
내 몸 이 아주 가벼워져 가



바다도 대답해주는구나

3-4

정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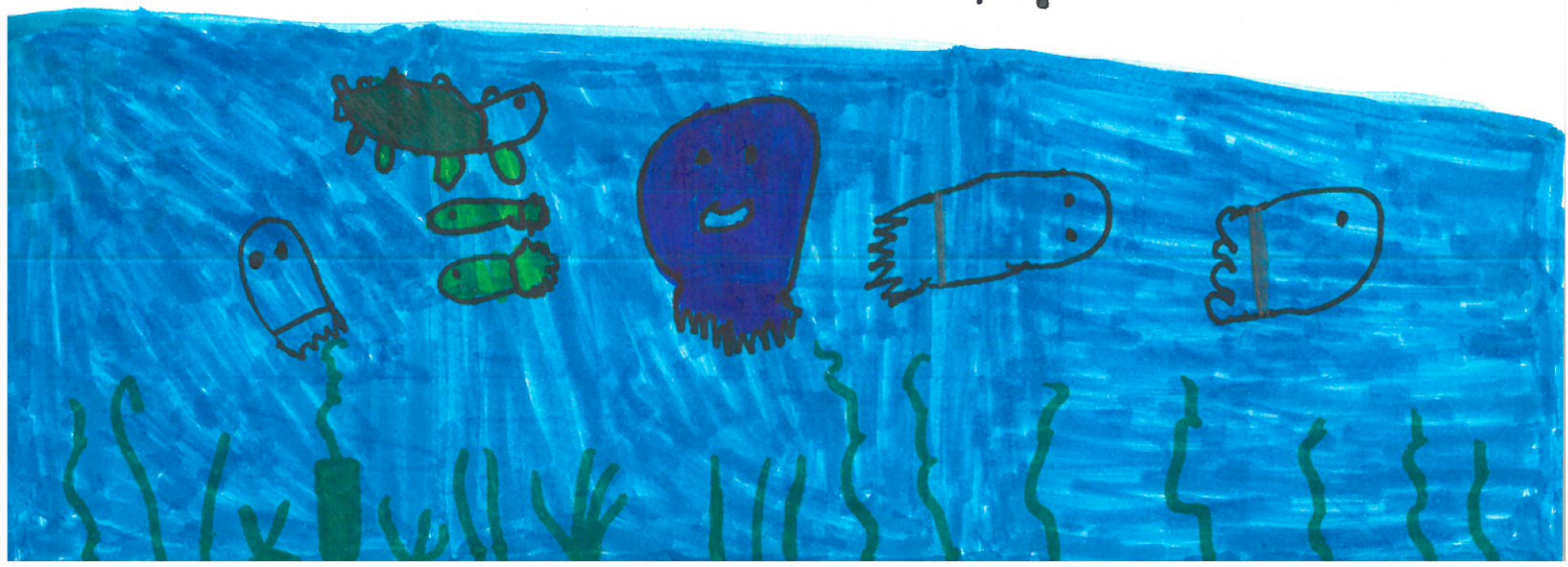
바닷가 고운 모래밭에서
왼손 오른손으로
웅덩이를 만들었다.

바다도 간지러운지
바닷물이 살금살금 밀려온다.

우리들의 작은 손뚱작에도
바다는 대답해주는구나.

구슬다란 바다도

우리들의 작은 손뚱작에도
바다는 대답해 주는구나.



시범단

떨어
20

노려

3-4

최우진

내 몸에
운동선수가 들어왔다.

13

따라 주르주르.

BB

희망

운동선수라 따라

시범단

희망과 의지도 들어왔다.

도복 소리가 팡팡

의지

시범단을 많이 하니
점점 적응이 되었다.

신차

바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펑펑.

내 몸에 너무 좋은 것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U

난 태권도 선수가 될 거다.